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첫 5영업일간 판매 현황(9.30일~10.7일)

-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의 10.7일까지 첫 5영업일간의 판매액은 총 목표액(6,000억원)의 55%인 3,301.6억원이다. 오늘까지 서민 우선배정 및 온라인 판매량 제한이 있었으며, 내일부터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오늘까지의 판매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민 판매비중)** 서민*에게 펀드 가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첫 5영업일간 총 목표액(6,000억원)의 50%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서민의 가입액은 약 1,115억원으로 판매된 전체금액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이는 1차 때 서민 판매 실적(약 35%)과 유사한 수준이다.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온라인 판매비중)** 온라인 판매 집중으로 영업점 창구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였다. 5영업일간 판매 결과 은행, 증권 구별없이 온라인 판매비중이 높게(은행 74%, 증권 78.6%) 나타났다.

- **(은행·증권사 비중)** 증권사 판매액이 약 1,892억원(배정액 대비 72.5% 판매, 총 판매액의 57.3%), 은행 판매액이 약 1,410억원(배정액 대비 41.6% 판매, 총 판매액의 42.7%)으로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더 많았다.

<첫 5영업일간 판매현황>

구분	판매액	배정액 대비 소진율	온라인	판매액 대비 비중	서민	판매액 대비 비중
은행	1,409.7억원	41.6%	1,051.1억원	74.6%	423.9억원	30.1%
증권	1,891.9억원	72.5%	1,481억원	78.3%	690.6억원	36.5%
합계	3,301.6억원	55.0%	2,532.1억원	76.7%	1,114.5억원	33.8%

- 6영업일차인 10월 8일(목)부터 판매 종료기한인 10월 15일(목)까지는 서민 우선배정 및 온라인 판매제한 없이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된다. 서민 등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판매처에서 판매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10.8일(목)부터는 투자자의 가입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5영업일간의 판매 실적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운용사 3社(미래에셋, 삼성, KB자산운용)는 각 판매사별 배정물량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판매사별 잔여물량은 [붙임]과 같다.
- 2차 펀드에 가입하신 고객은 연간 한도(1억원) 내에서 판매기간 중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종림	(02-2224-2070)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2-2224-2071)
			사무관	박찬혁	(02-2224-2072)
			주무관	이세은	(02-2224-2075)

판매사별 잔여물량 (10.7일 17시 기준)

* 가입취소분 발생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에 문의 필요

※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

구분	회사명	잔여물량 (억원)
은행 (10개사)	농협	133.2
	신한	213.4
	우리	174.2
	하나	168.6
	기업	71
	국민	246.6
	아이엠	15.6
	부산	30.8
	광주	21.5
	경남	15.3
	합계	1,090.3
증권 (14개사)	KB	145.2
	NH	150.9
	대신	40.7
	메리츠	5.1
	미래	362.8
	삼성	279
	신한	85.3
	아이엠	36.5
	우리	32.5
	유안타	66.8
	키움	126.4
	하나	25.7
	한국	193
	한화	58.3
	합계	1,608.1